

바이브, 앨범 '리피트'로 감성 되찾는다

보컬 그룹 바이브가 최근 공개한 일곱 번째 정규앨범 '리피트'는 '바이브의 감성' (윤민수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시도).

2002년 데뷔한 뒤 15년차 가수가 됐다. 큰 사랑을 받았던 비워도 다시 한 번(1집)이나 '술이야(3집)' 등 '초창기 바이브'와는 결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걸 가리려고 화장이 점점 진해진 느낌이었어요. 그게 좀 과하지 않나 싶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순 없겠지만 이번 앨범은 초반의 감성을 찾기 위한 수순이죠." (류재현)

'리피트'에는 더블 타이틀곡 '1년 365일' 비야를 포함해 모두 14곡이 실렸다. 28곡 이상 준비해서 추리고 추렸다. 대중이 좋아했던 바이브의 색이 땀, 어떻게 지금과 절충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나온 앨범이다.

"사랑 받았던 목소리 톤과 우리의 색을 계속 생각했어요. 류재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성을 생각하면서 부드럽고 편하게 노래를 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따뜻하지만 슬픈 감성이 있는 음악이었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윤민수)

"처음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음악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이브 하면 떠올리는 징징대고 진지한

"한 때 노래방에서 자주 불리는 가수로 꼽혔던 만큼 술 한잔 마시고 부를 수 있는 노래 상상 하며 만들어"



보컬 그룹 바이브 류재현(왼쪽) 윤민수(오른쪽)가 최근 공개한 일곱 번째 정규앨범 '리피트'로 대중 곁으로 돌아왔다

모습을 떠나서 편하게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했을까(류재현). "솔직히 어린 친구들이 바이브를 잘 몰라서 위기감을 느낀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모든 연령층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었죠." (윤민수)

거미와 함께 한 타이틀곡 '1년 365일'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고민과 사랑을 젊은 정용화와 첸의 목소리로 노래한 '별정페이' '썸타', 가벼운 윤민수의 목소리에 김숙이 재미를 더한 '별다방', 팝스타 알 켈리와 호흡을 맞춘 '아이 보우(I vow)' 등

이 실렸다.

"처음에 첸을 섭외하면 (윤민수가) 무릎을 꿇겠다고 했는데"(류재현). "사실 안 할 줄 알았어요. 원래 저랑 같이 '썸타'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첸이 너무 반짝반짝하게 잘 부르더라고요. 제가 부르면 분위기가 깨져서 최초로 저의 앨범에 다른 가수가 혼자 부른 곡이 실리게 됐죠." (윤민수) 계속해서 대중의 위치에서 떨어지고 노력하면서 만든 앨범이다. 한 때 '노래방에서 자주 불리는 가수'로 꼽혔던 만큼 노래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다. "술 한 잔 마시고 부를 수 있는 노래 혼자 불러도 되고 듀엣으로 불러도 되는 노래.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윤민수)

이번 앨범으로 별다른 방송활동을 하지 않는 바이브는 공연을 통해 더 많은 팬들을 만난다. 오는 6월25일~28일 양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7집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콘셉트로 '리피트' 앨범 수록곡뿐 아니라 19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곡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아직 아이디어를 내놓는 단계지만, 90년대 댄스음악이나 김건모 선배님의 노래를 하는 '토토' 같은 구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윤민수)

/정해은기자



고창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 성료

강원삼척초·인천구월초 남·녀 초등부 정상

고창군에서 펼쳐진 '제 71회 전국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다.

고창군통합체육회와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고창군립체육관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다.

대회 결과 강원삼척초와 인천구월초가 각각 대회 남녀 초등부 정상을 올렸다. 강원삼척초는 25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초부 결승에서 상산초를 16-12으로 물리쳤고, 앞서 열린 여초부 결승에서는 인천구월초가 유전초를 12-6로 꺾고 우승했다.

이박우정 고창군수는 '박진갑 넘치는 경기로 기량을 마음껏 펼쳐 준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경기력과 우수한 경기운영으로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해 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H.O.T 재결합설 관련 멤버들과 관계자 "사실무근"

1990년대 후반을 풍미한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H.O.T의 재결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요계에는 H.O.T가 9월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20주년 콘서트를 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O.T 멤버들의 관계자는 그러나 논외의 조차 오간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입을 모았다.

H.O.T의 리더였던 문희준은 이날 오후 자신이 DJ를 맡고 있는 KBS 쿨 FM '정재형 문희준의 즐거운 생활'에서 "재결합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추측에 대해 자제 부탁한다"고 말했다.

H.O.T와 관련 풍문이 계속 떠도는 이유는 생략을 이룬 '젝스키스'가 MBC TV '무한도전'을 통해 16년 만에 멤버 여섯 명이 함께 한 모습을 선보인 것과 맞물리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재결합과 관련, 진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H.O.T는 '캔디 행복' '위아더 퓨처' 등의 히트곡을 내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2001년 해체됐다.

/정해은 기자

박태환,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 예선 전체 1위

박태환(27)이 주 종목 중 하나인 자유형 200m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결승 무대를 밟았다.

박태환은 26일 오전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50초82를 기록했다. 16명의 선수 중 예상대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무난히 결승행에 성공했다. 오후 진행되는 결승에 맞춰 컨디션 조절한 탓에 기록은 썩 좋지 않았다.

8번 레인에 선 박태환은 50m를 2위에 해당하는 25초90으로 통과했다. 2위 그룹과 서서히 격차를 벌리기 시작한 박태환은 100m 구간에서 53초88으로 1위에 올랐다.

박태환의 본 모습은 결승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유형 200m의 올림픽 A기준기록은 1분47초97이다.

/김민근기자

토티엄, 웨스트브로미치와 무승부...리그 우승 '적신히'

승점 69점으로 선두 레스터 시티와 7점차로 벌어져 레스터 시티 남은 3경기중 1경기만 승리해도 우승 확정

손흥민(24)이 11분을 뒀 토티엄 핫스퍼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리그 우승의 꿈에서 한걸음 더 멀어졌다.

토티엄은 28일(한국시간) 새벽 4시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에서 1-1로 비겼다.

상대 수비수 크레이그 도슨의 자책골로 승점 3점을 챙기는 듯 했으나, 후반 초반 역시 도슨에게 헤딩 만회골을 내주며 비겼다.

손흥민은 후반 39분 라멜라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으나,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는 시간이 부족했다.

토티엄은 이로써 19승 12무 4패로 승점 69점을 기록하며 레스터 시티와의 우승 경

쟁에 적신히 커졌다. 레스터 시티와의 승점차는 7점이다. 레스터 시티는 남은 3경기에서 1경기만 승리해도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티엄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에 헤리 케인을 세웠다. 공격 2선에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리 알리, 에릭 라멜라를 배치했다.

포백 앞 수비형 미드필더에 무사 데멜레, 에릭 디아지가 호흡을 맞췄고, 포백은 다니 로즈, 베르통안, 토비 알더바이럴트, 카일 워커가 담당했다. 골문은 휴고 요리스가 지켰다.

토티엄은 전반전 라멜라, 알리, 에릭센 등 3각 편대가 빠른 역습을 펼쳤다. 풀백 대니 로즈도 왼쪽을 파고들며 공격의 활로를 개척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수비에 방점을 둔 경

기를 운영했다. 토티엄의 공세에 대응해 잔뜩 응크린 채 맞대응했다.

수비를 좀처럼 풀어주지 않았고, 호세 론돈이 공격에서 고군분투했다.

토티엄은 전반 초반 결정적 득점 기회를 2차례 맞았으나 골문이 따르지 않았다.

케인이 전반 6분 페널티 박스 우측을 파고들며 때린 슈팅이 골대 왼쪽을 맞고 나왔다. 6분뒤 프리킥 상황에서도 에릭센이 직접 슈팅을 했으나, 이번에도 슈팅은 오른쪽 골문 상단을 맞고 튀어났다.

토티엄의 일방적 공세로 진행되던 이날 경기의 균형은 전반 32분 무너졌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수 도슨이 베르통안을 막다 자책골을 기록했다.

벨기에 출신 센터백 베르통안이 오른쪽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골문 바로 앞에서 몸을 던지며 머리를 뒀다.

이 슈팅이 상대 수비수 도슨의 몸에 맞고 골문으로 흘러 들어가며 행운의 선제골을 얻었다.

전반 초반의 골대 불운을 상회하는 골이 있었으나, 토티엄의 불운은 후반에도 이어졌

다. 토티엄은 후반 초반 이번에도 결정적 기회를 잡았으나 운이 따르지 않았다.

에릭센이 웨스트 브로미치 진영 왼쪽을 파고들다 쇄도하는 라멜라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이날 유독 몸이 무겁던 라멜라가 이 패스를 왼발로 바로 때렸으나 이번에도 슈팅은 골문을 맞고 튀어났다.

추가골 기회를 놓친 토티엄은 후반 27분 실점을 허용했다.

실전전 웨스트 브로미치 자책골의 주인공 공 도슨이 만회골을 뽑아냈다.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골문 중앙에서 경총 뛰어오르며 머리를 대 골망을 흔들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39분 이후 손흥민과 사들리를 잇달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다. 토티엄은 남은 시간 총공세를 펼쳤으나 리그 잔류에 사활을 건 웨스트 브로미치의 촘촘한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